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추진 박차

익산시-원광보건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개최... 성과 공유·향후 사업계획 논의 등

익산시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과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교육·산업·복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췄다.

시는 6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하이브(HIVE) 사업의 2차 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3차 연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이던 정현을 익산시장과 백준홍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익산상공회의소, 고등학교, 복지시설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익산시-원광보건대 컨소시엄은 지난 2년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하이브(HIVE) 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지역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추진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차 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 연도에도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메디푸드 전문가 양성 △재가노인돌봄 취업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자격증 과정 △아동돌봄 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 재취업과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화장품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비

함라산 산림복지 추진사업 현장 점검

익산 부시장, 호우피해 현장 신속 복구·차질 없는 사업 추진 지시

익산시가 함라산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6일 국립 익산 치유의숲 일원을 살펴보고, 호우피해를 입은 함라산 산림복지 시설을 점검해 신속한 복구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익산시는 함라산 일원에 '산림복지벨트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도내 최초로 조성된 국립 익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도시숲, 녹차밭 데크길, 4색 전망데크 등을 조성해 함라산의 산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함라산 도시숲은 오는 12월까지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치유센터 주변에 숲속도서관, 전망대, 산책로, 경관 숲 등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치유의 숲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녹차밭 데크길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한반도 최북단 차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는 함라산의 산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다. 4.1ha 규모의 녹차밭 3개소를 하나로 잇는 데크길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재정비해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4색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2007년 함라산 임도변에 조성된 노후한 전망대 4개소를 '사색(4색) 전망데크'로 탈바

꿈하는 사업이다. 휴양과 경관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해 금강과 응포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그간 산림정책은 전통적 업무인 치산녹화와 산물예방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숲의 다양한 기능과 중요성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산림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산림치유·산림교육 등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영석 부시장은 "국립 익산 치유의 숲과 연계사업을 통해 함라산이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함라산을 휴양·문화공간으로 계속해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겁한 인사청문회, 의회는 각성하라”

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비겁한 인사청문회, 의회는 각성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한경봉 의원은 브리핑에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5일 군산시 출자기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청문 범위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다.

전문가인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시스템이나 발전사업 및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며 후보자는 구체적인 회사 운영 계획 및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SPC 관리 문제, 서부발전과의 협의에 있어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불이익, 향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이익 창출의 어려움 등 세부 질의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답변이 아닌 일반적인 대답으로 일괄해 준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직무수행능력 검증에 마친 결과, 후보자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 등에 대한 숙지는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배경지식 및 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준비성이 부족했으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준비성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후보자가 퇴직하자마자 (주)큰길엔지니어링에 근무했는데 이상하게 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동안 이 업체는 69건 약 16억 원의 수익계약을 했고, 또한 본 의원이 (주)큰길엔지니어링과 같은 사무실 (주소지 동일)을 쓰고 있는 '양지해양개발'이란 업체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는데, 후보자는 모른다고만 답변했으나 같은 사무실을 쓰는 회사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냐며 더기가 막힌 것이 '양지해양개발'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익계약 건수가 총 8건에 불과한데 후보자랑 같은 사무실을 쓴 후 총 24건 약 12억원의 수익계약을 맺은 것은 정녕 이 회사랑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으며 과연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중국 양저우시 당서기 군산 방문

국제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 추진방안 등 논의

군산시의 중국 우호 도시인 양저우(揚州)시 당서기 일행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의 여정으로 군산시를 방문했다.

양저우시 왕진젠(王道健) 당서기 일행의 이번 군산 방문은 지난 3월 양저우시 상무위원회 부주임일행의 군산 방문에 이은 2번째 대표단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2025년 6월에 있을 양 도시 간 우호 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대한 논의와 다음 10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양저우시와 군산시는 지난 10년 동안 문화, 관광, 체육, 인문, 경제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군산 새만금문화화랑', '제7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 도시 교류회',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군산-양저우 사업투자설명회' 등 두 도시의 교류 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군산시를 찾아준 양저우시 대표단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6월 양 도시 우호도시 체결 10주년을 위한 긴밀한 교류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면서 "아무쪼록 양저우시의 우수한 기업이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저우시는 방문 2일째에 군산시에 소재한 '성일하이메탈(주)'을 방문하여 양저우시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과 기업 시찰을 진행한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